

노동이동 (Labor Mobility):1

-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노동생산의 전체가치를 극대화 하는 노동자와 기업의 배분이 발생함.
- 근로자는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직장을 끊임없이 구하고 기업은 더 싼 노동력을 구함.
- 따라서 동일한 숙련수준의 근로자에 대해 기업간 그리고 노동시장간에 노동의 한계생산가치( $VMP_L$ )가 동일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함.
- 근로자와 직장간의 결합은 일종의 결혼으로 해석될 수 있음.

- 근로자는 자신의 능력과 생산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소유할 수 있으며 특히 회사는 근로자의 능력과 생산성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보유할 확률이 높음 → 비대칭적 정보 (Asymmetric information)
- 근로자와 회사의 value of match 는 느리게 시장에서 구현됨 → 현재의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면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결합을 시도
- 이론 인한 직장이동 (labor mobility)의 결정요소와 이를 구현하는 경로 (mechanism)에 대해 공부해 보고자 함.
- 미국노동시장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성이 존재함.

● 노동이동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함.

- (1) 이주(migration)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?
- (2) 이주자와 이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?
- (3) 어떤 요인들이 이주의 자기선택(self-selected)과 관련이 있는가?
- (4) 이주자와 이주한 지역에 있어서 이주의 결과는 무엇인가?
- (5) 이주를 통한 이득(gain)의 크기는 상당히 존재하는가?
- (6) 이주로 인한 효율성의 크기는 얼마인가?

## 인적자본투자를 통한 지리적 이주 분석

- John Hicks(1932): 경제적 환경의 차이, 즉 임금의 차이가 이주를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이 됨 → 인적자본투자(human capital investment) 분석의 모체가 됨.
- 이주결정의 분석은 인적자본투자 모델의 간단한 적용예가 됨.
- 현재 뉴욕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하는 결정을 하고자 함.
- 20세인 근로자가 뉴욕에서 받는 임금은  $W^{NY20}$  이며 캘리포니아 주로 이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 $W^{CA20}$
-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데  $M$  만큼의 비용(정신적 비용 포함)이 초래됨.

- $PV^{NY} = W^{NY20} + W^{NY21}/(1+r) + W^{NY22}/(1+r)^2 + \dots$

- $PV^{CA} = W^{CA20} + W^{CA21}/(1+r) + W^{CA22}/(1+r)^2 + \dots$

- 캘리포니아 이주를 통한 순이익(net gain)은 아래와 같이 결정됨.

- Net gain to migration =  $PV^{CA} - PV^{NY} - M$

- If net gain to migration is positive, then a person will be moving

● 실증분석에서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설(propositions)들이 제기됨.

(1) 이주지역(destination)에서의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면 이주 확률이 증가할 것임.

(2) 현거주지역에서의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면 이주 확률이 감소할 것임.

(3) 이주비용의 증가는 이주확률을 감소시킴.

➔ 근로자가 이주를 통한 투자 수익이 높을 경우에만 이주가 발생함.

## 미국내에서의 이주(Internal Migration in the US)

- 미국은 매우 이동성이 높은 국가임. 예를 들어 2000 & 2001년도 사이에 전체 인구의 2.8%가 국가간 이동을 하였고 2.7%가 주를 이동하였음.
- 실증분석의 결과는 근로자들이 더 좋은 고용환경을 찾아서 이주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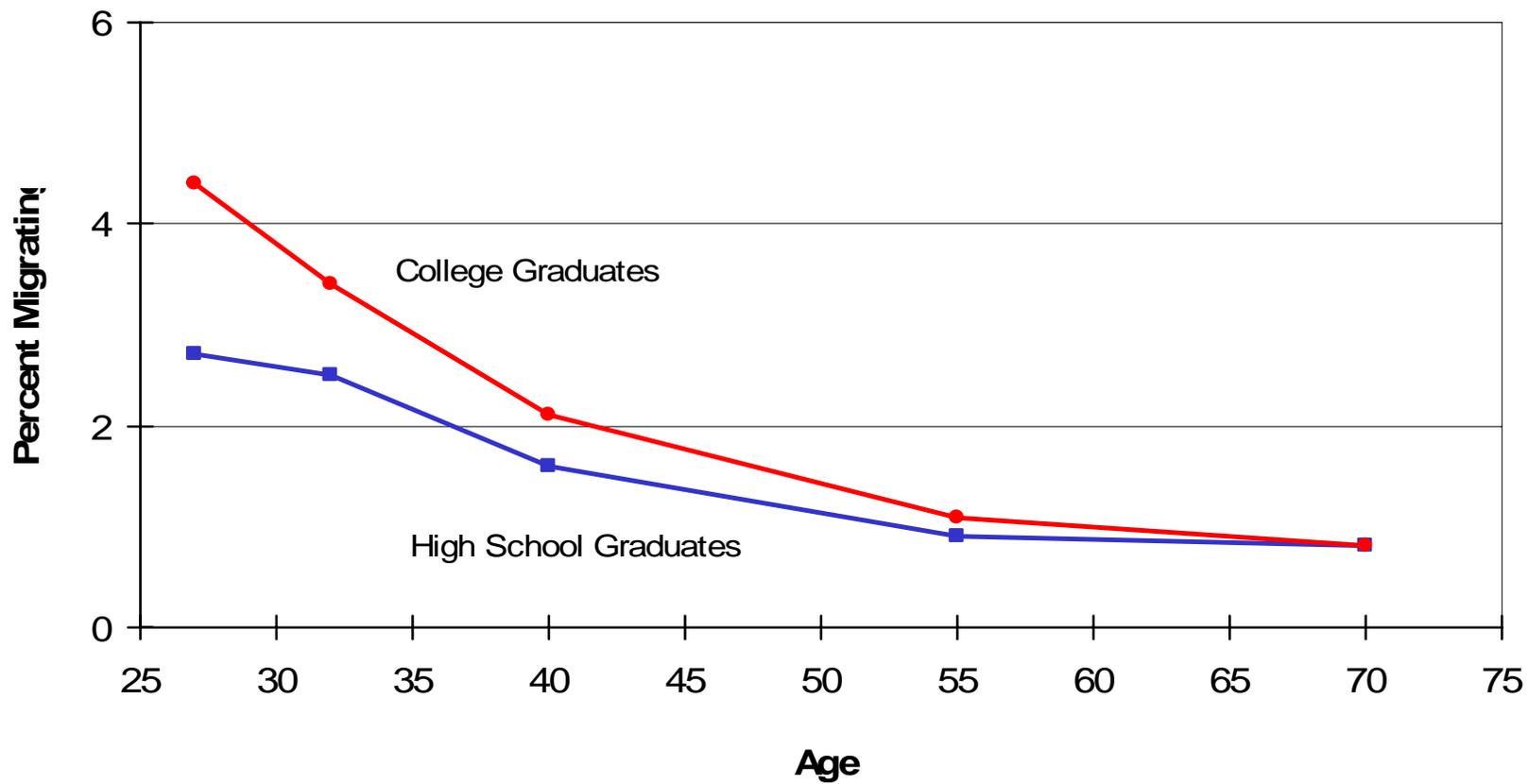
## 지역특성 변수가 이주에 미친 효과

- 이주지역과 현지역간 10 percentage points의 임금격차 증가는 이주확률을 약 7 percentage points 상승시킴.
- 현 거주지역의 10 percentage points 고용률 상승은 이주확률을 약 2 percentage points 감소시킴.
- 이주거리가 두 배 증가하면 이주확률을 절반 정도 감소시킴.

- 미국의 경우 1900 & 1960년도 사이에 남부농촌지역에서 북부 공업지역으로의 대대적인 흑인들의 이주가 있었음.
- 1900년도 남부지역에서의 흑인거주 비율이 90%인데 반해 1960년도에는 그 비율이 60%로 급감함.
- 우리나라의 경우 1960 & 1970년대 고속화된 공업화로 인해 이농현상이 발생하였음.

## 개인특성 변수가 이주에 미친 효과

- 나이, 교육수준과 같은 근로자의 관측되는 특성들이 이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.
-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주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→ 이주투자를 통한 수익을 수확하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임.
- 수확기간의 감소는 순이주가치(net gains to migration)를 감소시키며 이는 이주확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.



[그림 1] Probability of Migrating across State Lines in 2005–2006, by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

- 고학력일수록 이주확률이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존재함.
- [그림 1]에서 보는 것처럼 젊은(20대 중반) 대졸자가 젊은 고졸자에 비해 거의 두 배정도 이주확률이 높은 것으로 발견됨.
- 대졸자의 이주확률이 고졸자 보다 높은 이유는...
  - (1) 고학력자가 노동시장에서의 다른 직장에 대한 정보와 이주비용을 수집하는데 더 효율적이다.
  - (2) 고학력자의 기술(skills)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. 예를 들어 대학교수의 기술은 전국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음 → skills are very mobile

- 지역간 이주 (geographic migration)는 근로자들과 회사들간 매치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.
- 실증분석결과는 이주를 통해서 근로자들은 10% 이상의 임금상승을 얻게된다고 보고함.
- 이주는 궁극적으로 지역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킴.
- 미국에서의 임금격차 감소는 미국내 이주증가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함.

## Return and Repeat Migration

- 이주를 한 경우 다시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는 경향(return migration)과 한번 이주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주를 하는 경향(repeat migration)이 발생함.
- 이주자가 다시 살던 주로 돌아올 확률이 약 13%이며, 다시 새로운 주로 이주할 확률이 15%로 분석됨.
- 한번 이주한 뒤 몇 주 이내에 다시 이주하는 현상은 인적자본투자 이론과는 다소 상치되는 실증분석 결과임.

- 이주를 하고 나서 이것이 ‘실수’임을 발견하게 됨. 이주지역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→ uncertainty about job opportunities.
- 실제 기대 임금보다 적거나 이주비용의 증가 혹은 기타 비용의 증가 등등.
- 새로운 지역 혹은 직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return or repeat migration 이 발생할 수 있음.
- 평생임금(lifetime earnings)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직업경로(career path)에 의해서 발생 할 수 있음 → 예를 들어 변호사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함.
- 일종의 stepping-stone career paths.